

# 언제 식민지에서 벗어나랴?



문창주 (주)소프트파워/대표이사

**우** 리나라는 일제 36년 동안 압박과 설움 속에 식민지 시대를 살아왔다.

그 후 어렵게 쟁취한 독립 이후에도 또 다른 식민지 아닌 식민지의 압박에 또 다시 시달려 왔다. 일제시대 질곡의 시대를 벗어난 우리나라 국민들이 겪었던 식민지 아닌 식민지는 바로 IT분야의 식민지였다.

미국 IBM 장비 등에 전국민의 금융, 주민정보, 국방, 부동산, 자동차 등의 모든 프라이버시 정보를 담아 놓고, 막대한 국부를 유출시켜 왔던 것이다. 일제시대가 농경시대의 식민지였다면 이것은 정보기계화 시대의 식민지라고 할 수 있다.

불행하게도 지금 정보화 시대에도 우리는 식민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에 와서는 ‘전사적자원관리(ERP)’ 라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도입하여야 하는 솔루션 때문에 정보화 시대의 식민지 시대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

약력 : •79~82 육군본부 중앙전산소 •82~86 해외건설협회 •87~96 (주)데이콤 •99~2002 하나로통신 •현재 (주)소프트파워 대표이사

현재 우리나라 기업 및 공공기관은 SAP, ORACLE 등의 ERP 패키지에 지적재산권 등의 모든 정보를 담아 놓고 있다. 그리고 또 그 만큼 많은 국부를 유출시키고 있으며 보안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ERP의 중요성과 이를 활용한 기업의 경쟁력이다. ERP는 개방화, 글로벌화 자유 경쟁시장에서 경영전략과 조직경쟁력을 직접 좌우하는, 기업에게는 가장 중요한 솔루션이다.

외산제품의 경우 그 제품을 설계한 국가의 기업들은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외국산 제품을 도입한 우리 기업들은 법제, 관행, 문화 등이 맞지 않아 항상 낮은 수준으로 활용하고 있다면, 외국 기업들과 어떻게 경쟁하고 또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처음부터 우리나라 기업들은 외국기업들과 지는 경쟁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데도 우리나라는 IT 강국이라고 자랑을 하고 있다.

겉으로 드러난 지표만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에 자랑하는 세계 1위의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을 비롯하여 IT 관련 여러 지표들이 이를 뒷받침하는데 전혀 손색이 없다.

그러나 이런 자랑스러움의 속을 들여다보면 IT 강국이라는 표현이 무색하게 된다.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1위라고는 하지만 그 속에 들어간 핵심장비의 대부분은 외국산이다.

먼저 말했듯이 기업용 솔루션 분야를 살펴보면 식민지 시대와 다름없는 참담함에 직면하게 된다. 어느 기업용 솔루션 하나 국산 제품이 국내 시장조차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절름발이식 IT 강국인지를 실감하

는 씩씩한 현실이다.

다행히 산자부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기업에 맞는 국산 ERP가 있어야 한다’고 깨닫고 G7 국책 프로젝트를 통하여 외국산 ERP 제품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국산 ERP 제품을 연구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ERP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국고를 투입하여 개발되고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최적화된 세계적인 ERP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및 대기업에서 아직도 외면을 하고 있다.

한국방송공사, 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 한국조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마사회 등 ERP를 도입한 공공기관은 모두 외국산 ERP를 도입했다.

대기업들도 얼마 전까지 모두 외국산 제품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나라 법제와 상거래 관행에 맞고 커스터마이징하기 좋은,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의 국산 ERP를 많이 선호하는 추세에 있다. 하나로통신, 대한전선, 현대네트웍스 등의 기업들이 국산 ERP를 도입한 기업들이다. 특히 하나로통신은 사용하고 있던 외국산 ERP를 견어내고 국내 실정에 맞는 국산 ERP를 도입해 국산 ERP 발전에 큰 보이지 않는 기여를 하고 있다.

이제 기업용 솔루션 분야에서 세계적인 제품들과 견줄 수 있는 우수한 제품을 보유한, ‘절름발이식 IT강국’의 문제를 말끔히 해결할 수 있는 세계적인 IT기업이 우리나라에도 하나쯤은 있어야 할 때가 되었다.

우리나라에 있어야 할 세계적인 IT기업은 이런 모습이

어야 할 것이다.

우선 세계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외국산 솔루션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제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단 하나의 제품이 아니라 지금의 IT분야의 발전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아울러 시장의 세분화 추세에 따라갈 수 있도록 다양한 템플릿을 보유하여 기업들마다 다른 요구와 욕구를 최소한의 비용과 시간만으로 해결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고객들에게 지속적이고 항구적인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거기애다가 축적한 산업지식과 노하우를 솔루션으로 표현해낼 수 있는 개발도구까지 갖춘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얼마 전에 ‘(주)소프트파워’로 자리를 옮겼다.

이제 우리나라에 있어야 할 세계적인 IT기업의 가능성을 가장 크게 지닌 기업이라는 판단이 들어 과감히 자리를 옮긴다는 결심을 하였다.

우선 이 회사는 세계적인 제품과 어깨를 견줄 수 있는 제품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 더구나 ‘topEnterprise(탑엔터프라이즈)’라는 국내 유일의 대기업용 ERP 제품은 산업자원부의 G7 국책 프로젝트를 통하여 개발되어 태어날 때부터 가능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예상대로 ERP의 세계적인 회사인 SAP이나 ORACLE과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또한 이 회사는 이렇게 뛰어난 ERP 제품뿐만 아니라 역시 산업자원부의 G7 국책 프로젝트로 개발된 SCM을 비

못하여 CRM, GroupWare, KMS, EDMS, EKP 등 다양한 솔루션을 보유, 'Single Vendor 전략' 이 가능하여 고객사에게 통합된 제품을 한 번에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이런 우수한 제품 이외에도 이 회사가 세계적인 IT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강점은 바로 오로지 기업용 솔루션 분야에서 20년간의 사업을 수행하여 그 어느 회사도 따라올 수 없는 산업지식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회사는 자체 개발도구를 보유, 원천기술까지 가지고 있다.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개발도구인 Process Q는 지금까지의 개발도구와는 전혀 다른 제5세대 개발도구로, 프로그래머가 아닌 개발의 비전문가도 쉽고 빠르게 자신이 알고있는 업무 프로세스, 노하우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대단히 큰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이제 이 회사의 이런 우수한 제품과 노하우가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려고 하고 있다. 일본, 중국 등지에서 자국의 총판을 담당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대기업들이 나타나고 있다. 세계적인 IT기업의 꿈이 현실화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IT에 일생을 받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황무지 같았던 우리나라의 IT분야가 이렇게 발전하는데 결코 작지 않은 공헌을 하여 왔다고 자부하고 있다.

내가 몸담고 있는 이 회사, (주)소프트파워가 세계적인 IT기업으로 성장하기 전까지는 나의 IT에 대한 사랑과 발전을 위한 노력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